



광주시 동구 지원동~서구 광천동에 이르는 광주천 10여 km 구간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동구 학동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천, 아파트숲에 갇히나

### 학동·방림·임동 이어 양림동에 또 건립 조망·조화 무시한 '구도심재생' 바뀌어

광주천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뒤덮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상당수가 광주천을 인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광주시와 관련 전문가 등이 노후 단독주택 정비 방안으로 아파트 건립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고립·훼손되는 것은 물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무등산 조망도 가로막히는 등 이질적인 도시공간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지난 30일 제4회 도시계획

회의의위원회를 열어 '남구 양림 2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남구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12만 8997㎡ 중 광주천에 접해 있는 2만 5284㎡에 15층 이하 55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나머지 구역은 거주주민이 자력으로 한옥지구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화재인 이장우 가옥과 최승호 가옥이 포함된 한옥지구의 경우 도로 개설 이외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해 사실상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구 학동, 남구 방림동,

북구 임동 등에 이어 또다시 광주천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 외에도 '광주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광주천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최고 60층 이상 아파트로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도심 내 10km 이상 구간의 양림이 아파트 숲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천에 인접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도로의 반대 경계선으로부터 사선(斜線)으로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향후 건설경기가 살아날 경우 초고층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구도심 재생을 위해 광주천을 도심재생 3대 축으로 하나로 설정하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직공원 리모델링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등과 연계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고층 아파트 콘크리트 벽면이 광주천 경관을 좌우할 위기에 처했다.

또 광주시의 도심재생정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 녹색창조도시정책 등에 맞춰 고층 아파트 건립 위주로 짜인 '광주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광주의 구도심 재생에는 광주천과 인근 단독주택지역, 역사문화자원 등이 핵심요소이며, 이들을 어떻게 상호 연계·정비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구도심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외곽 택지지구와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땅 안주면 J프로젝트 포기”

### 차지사, 간척지 부지 양도 정부 비협조 불만 표출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의 비협조와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不在)까지 맞물리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J프로젝트 포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승인을 거친 사업인데도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호남 확대론”에 대한 입장

을 묻는 질문에 “F1(포틀러인) 경주장 부지와 J프로젝트 부지 양도·양수 문제 등에 대해 (정부에)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땅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안 팔면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동안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안되면 사업 포기 선언을 해야 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가 핵심 현안인 J프로젝트에 대해 ‘포기’의사를 언급한 것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이어 “J프로젝트는 정부가 기업도시로 지정한 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수백억씩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지만 땅 문제로 시간이 흘러가니 얼마나 손해가 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자를 찾기 위해 J프로젝트에 대해 확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말을 믿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분석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지사는 J프로젝트와 더불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와 F1 대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전남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부지 국방부와 158만여㎡ 매입 합의”

### 강운태시장 취임 1돌 회견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 장성군 제병훈련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로 국방부 측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광주 평동 포사격장을 장성의 제병훈련장으로 옮긴 뒤 훈련장 밖 158만여㎡를 매입하기로 군 당국과 큰 틀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 “동백훈련장은 제병훈련장 인근의 영광군 아산부지 396만여㎡ 가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며 “영광은 민가가 없는 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준규 검찰총장 사실상 사의표명

### 수사권 조정안 수정 반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 4일 거취를 표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총장은 지난 29일 “유엔 세계검찰총회의를 주재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직접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한찬식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부 조율로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된 데 대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검 참모진에게 “거취는 이미 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진 전원이 수사권 조정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일단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www.hpdynastycc.co.kr



## 지구를 위한 환경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합평에 오시면  
사계절 양진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합평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320-7700 · 7777